

환



소

식

경

계



이만의 환경부 장관, OECD 환경각료회의 참가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지난달 28일부터 29일 까지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9차 OECD 환경장관회의'에 참가했다.

OECD 환경장관회의는 OECD 국가간 환경정책방향을 협의하는 최고위급 회의로 1974년 개최 이래, 총 8회의 회의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최적의 정책대안 제시와 효과적인 이행전략 마련, 각국의 경험 공유 등 국제환경질서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OECD에서 지난 3월 5일 발표한 '2030 환경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최근의 환경 추세와 장래 전망에 대해 범지구적으로 효율적인 환경정책의 틀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경쟁 및 기술혁신, 적극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만의 장관은 '환경추세와 전망'을 논의하는 제1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했으며, '전략환경평가제도', '수질오염 총량제', '환경보건법' 제정 등 생물다양성과 수질 보전, 환경 보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소개했다.

신흥 산업국과 OECD 회원국간의 협력을 논의한 제2세션에서는 신흥 산업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선진국의 능력배양, 정책수립지원,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

리나라 주관으로 아태지역의 녹색성장(Green Growth)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서울이니셔티브' 활동을 소개했다.

이 외에도 기후변화정책에 따른 경쟁력 약화 문제와 친환경 기술혁신에 대해 논의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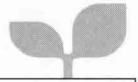
자일렌 등 화학물질 취급소, 배출량 감소 추세

환경부는 2006년도 화학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222종 1억1816만6000톤의 화학물질이 취급돼 이 가운데 213종 47,796톤(취급량의 0.040%)이 외부로 배출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는 2005년 배출량(4만7299톤)에 비해 1.1% 증가한 것이지만 전년보다 취급량이 4.9%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배출량은 2005년 0.042%에서 2006년 0.04%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사업장에서 폐수 또는 폐기물로 이동되는 화학물질의 양 또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로의 이동량은 27만7000톤, 폐수로의 이동량은 5만1000톤으로, 취급량 대비 이동량은 2005년 0.29%에서 2006년 0.28%로 감소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추세는 그 동안 환경부가 배



출저감 자발적협약 체결, 정보교류회 활동 등 화학물질의 환경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업계와 함께 다각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자발적협약 사업을 중심으로 한 배출저감기술(LDAR, RTO 등) 등 자발적인 배출저감 활동의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2006년 배출량조사 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학물질별로는 유독물인 자일렌, 톨루엔, 메틸 알코올 순으로 많이 배출됐고, 상위 10개 화학물질이 전체 배출량의 81.3%를 차지했다.

벤젠, 염화비닐 등 발암물질 9종의 배출량은 764톤(전체 배출량의 1.6%)이며, 그중 벤젠(55.0%)과 포름알데히드(25.2%)가 배출량의 80.2%를 차지했다.

이들은 대부분 대기(47,598톤, 99.6%)로 배출됐고, 198톤이 수계로, 나머지 0.04톤은 토양으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8,915톤, 18.7%), 울산(7,673톤, 16.1%), 경남(7,490톤, 15.7%) 순으로 배출량이 많았다.

환경부는 사업장에서의 배출량 조사만으로는 화학물질의 제조·사용에서 뿐만 아니라 소비·유통·폐기 등 전 과정에서의 배출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올해부터 ‘화학물질 전 생애 배출 목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사업장별 배출량의 자발적인 공개를 시작해 2010년 5월까지 모든 사업장의 배출량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수석행정관 등 5명)이 지난달 16일부터 18일까지 경남 창원 현지에서 제10차 램사르협약 당사국총회(10월 28일~11월 4일) 준비상황에 대해 실시했다.

실사 결과, 이번 총회는 165개국의 정부대표, 관련 국제기구 및 NGO 등 약 2,000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회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걸맞게 총회장 시설 및 세부 운영 사항 등에 있어서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크게 만족감을 표시했다.

또 한국이 전 세계 습지보전과 습지보전 인식 증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창원선언문 채택과 Korea Fund 조성에도 큰 관심을 표명했다.

창원선언문은 개도국 능력개발 및 재정지원 방안 등 램사르협약이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할 현안과제와 비전을 담아 총회 공식 결의문으로 채택토록 할 예정이며, 총회 개최국으로서 지구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Korea Fund를 조성하여 2009년부터 동아시아 램사르습지센터 운영 및 개도국 습지보전사업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총회는 환경인증을 받은 회의 기자재만을 사용하고, 전자문서 활용, CNG 및 하이브리드차를 사용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총회(Green Conference)로 준비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특히, 총회 기획단은 “총회 참석자에게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환경총회로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학술심포지엄 및 NGO대회 등을 개최하여 국제적인 습지보전 인식증진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도록 하며, 각국 대표단 등 참가자에게 우포늪과 순천만 등 국내 주요 습지를 견학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습지생태

창원 램사르총회,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

람사르협약 사무국 실사단(Ms. 발레리 히긴스



관광 육성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환경부 황석태 단장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넘어 환경선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10월부터 ‘페트병 수돗물’ 판매 가능

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먼저 서민들이 살고 있는 노후 주거단지부터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수돗물 문제는 주로 노후 급수시설로 인한 녹물발생 등에 기인했다. 특히 서민들이 살고 있는 오래된 임대단지, 다세대 주택 등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먹는샘물, 정수기 등의 구입을 위한 서민 가계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노후 수도관 개량지원, 노후단지에 공동급수시설 설치,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약수터 관리강화 등 서민들을 위한 수돗물 문제 해결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7일 발표했다.

먼저 수돗물 품질저하와 불신가중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옥내 급수관의 개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및 소규모 주택(85㎡ 이하) 거주자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기초수급대상자 및 아동·노인복지시설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또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과 병행하여 노후된 대규모 주택단지에 저수조 공급 이전 관망에 공동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옥내급수관을 통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10월부터는 서민들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먹는 샘물보다 저렴한 병입(페트병) 수돗물의

판매도 허용할 계획이다.

병입 수돗물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페트병 등에 담아 판매하는 것으로 관망과 옥내 급수관을 거치지 않아 노후 옥내 급수관으로 인한 수질 저하 문제가 전혀 없는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다. 또한 기존의 먹는 샘물보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어 서민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환경부, 화학산업 CEO 초청 간담회 개최

환경부(이만의 장관)가 지난 23일 오전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화학산업계 CEO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종광 효성 부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화학업계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만의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과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의 사전등록 지원계획 등을 설명하고, 화학산업계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감축의무(Post-2012 체제)에 대비한 능동적 협상 전략과 ‘기후변화대책법(가칭)’ 제정 및 국내 탄소시장 육성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해 설명하고 산업계에는 온실가스 대체물질 개발 등 저감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EU REACH 대응과 관련해서는 12월 1일까지 REACH 사전등록 미비로 대EU 수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수출기업 전수관리 및 ‘윈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지원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이만의 장관은 국내 화학물질 관리의 선진화 추진 계획과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장

별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방향을 설명하고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화학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로 삶의 질 향상

환경부 이만의 장관은 지난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깨끗한 물, 맑은 공기’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지난 50일간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취수, 정수, 급수 등 수돗물 공급단계별로 추진중인 역점사업들이 제시되어 있다.

취수단계에서는 사고우려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DB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2008.3)하고, 산업폐수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2008.4), 5대강 본류구간의 취수원 다원화 가능지역 조사계획을 수립(2008.3)했다.

정수단계에서는 첨단 막여과시설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영등포정수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2008.2~2010.5), 병입수돗물 유사판매 허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2008.10월 시행)할 계획이다.

급수단계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국고지원 추진(2008.4), 전국 9개 권역 중 북한강 등 4개 권역 급수체계 조정사업 착수(2008.4), 수도사업자 대형화·전문화 및 민간 위탁 등 구조개편을 통해 국내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추진(2008.4,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환경성 질환의 사전억제에서부터

감시·관리, 진단·치료까지 전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어린이 장난감 등에 사용되는 납 등 5종(납, 카드뮴, 6가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물질을 취급제한물질로 추가(2008.5월 고시개정)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항목을 확대(6개 → 9개)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산모·영유아, 노령인구 등 민감계층과 폐금속광산 등 오염지역 주민대상 건강영향조사 실시(2008.3월),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예보제를 시범시행(2008.3~10), 환경보건법을 제정·공포(2008.3월), 전국 보육시설 20곳에 대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사업을 착수(2008.4~11)했다.

또한 보건소 5곳(광명, 여주, 김해, 진안, 군포)을 아토피·천식퇴치센터로 지정(2008.3)했고, 석면중피종·소아암·선천성 기형 등 환경성질 환연구센터 5개소를 추가공모(2008.5 지정) 중에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5대강 본류구간의 급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막여과시설 도입계획(2008.7) 및 시설·설치 기준을 제정(2008.12)하고,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본격 추진(2010~)할 예정이다.

또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폼알데하이드’의 건축자재 방출기준을 강화(2008.10)하고, 아토피전문 진료센터를 2010년까지 34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천식예보제를 2010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정과제가 추진되면 “2012년에는 하천표류수 및 호소수에 대한 원수 의존도를 92.8%에서 80%로,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51%에서 68%로 높아진다. ㉔